“이번 미션은 ‘우아한테크코스 한 달 생활기를 주제로 글쓰기’입니다. 진행 방식은 …”

글쓰기라니… 나 자신을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나를 위한 글을 쓴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글재주도 없어서 깔끔하고 논리정연하게 글을 풀어나갈 자신도 없다.

글쓰기 영상을 보니 글을 잘 쓰지 못하면 잘 쓰는 사람처럼 쓰지 말라고 한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는 비단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수준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는 수없이 많은 자기 객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이다. 아직 난 그러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위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조금은 잘 쓰고자 하는 욕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미 다른 크루들이 나보다 더 좋은 글로 우리의 생활을 그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나의 일상을, 모습을 그려볼까 한다. 나중에 이 글을 읽으면 그 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떠오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지금부터 오늘 나의 하루를 시작해보겠다.

오늘도 우아한테크코스(이하 우테코) 교육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집을 나설 때 코끝을 찌르던 차가운 공기는 어느덧 따뜻한 꽃향기를 품은 봄바람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낯설고 새로워서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던 거리가 이제는 새로움이 느껴지진 않는, 그러나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기분 좋은 출근길로 바뀌었다. 잠실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 무리에 뒤섞여 루터회관에 도착할 때면, 나도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는 사람이란 기분이 들어 조금 뿌듯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루터회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도착하면 각기 다른 시간을 보내고 이곳에 도착한 50명의 크루들을 마주한다.

“스티치, 좋은 아침이네요!”

스티치,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이름이다. 우테코에서는 각자 다른 닉네임을 가지고 생활한다. 우테코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린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이름 옆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달려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이, 학력, 재력, 명성 등으로 가격표의 숫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 가격표를 통해 사람들은 타인의 가치를 판단한다.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아니, 믿기 싫지만 그랬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어린 나이에 많은 명성을 쌓아 올린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비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여기, 우테코에는 이름이 없다. 그 옆에 붙어있던 가격표도 찾아볼 수 없다. 닉네임이라는 지우개가 모두 지워버렸다. 그래서 이전처럼 가격표로 가치를 매기는 건 불가능해졌다. 물론,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런 환경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었다. ‘저 크루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어? 저 크루는 되게 철학적이네’, ‘이 크루는 개발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등.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느껴지는 분위기와 내비치는 감정으로 그들을 알아가게 된다. 보이지 않던, 실체를 알 수 없는 가격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의 나이도, 학력도, 그 어떤 것도 모른다. 사실 그리 중요하지도, 궁금하지도 않다. 그냥 내 옆에, 여기 교육장에 있는 모든 크루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지녔다는 것.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위해 성장하고자 모였다는 것 이외는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힘이 이토록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처음 이 힘을 느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곳에서는 나의 고민은 모두의 고민이 된다. 모두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 된다. 내가 처한 상황은 여기 크루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다른 크루가 처한 상황은 언제든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의 고민에 함께 귀 기울이고 고민해 준다. 이로써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나아간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나도 어느덧 이러한 분위기에 스며들었다. 경쟁에 치여 혼자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우테코에서의 생활은 나를 인간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곳에서 하는 교육을 열심히 따라가면 멋진 개발자가 되어 있을 것이란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실력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 내면이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길. 그래서 앞으로 인생의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남은 8개월을 그저 이곳의 흐름에 맡겨보려 한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오해하진 말기를.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할 것이다.

언젠가 다시 이 글을 읽을 나는, 멋진 개발자이면서 지금보다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기를 바란다.